

# 외국인 운동선수 특별귀화 관련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이장원<sup>1</sup>, 임승엽<sup>2\*</sup>

<sup>1</sup>중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sup>2</sup>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 An Analysis on the Media Reports Frames regarding Special Naturalization of Foreign Athletes

Jangwon Lee<sup>1</sup>, Seungyup L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Leisure Sport, Jungwon University

<sup>2</sup>Division of Global Sport Studies, Kore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 현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되는 프레임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Integrated Database System’(KINDS, <http://www.bigkinds.or.kr>)을 활용하여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MBC, SBS, YTN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외국인 운동선수의 특별귀화와 관련된 보도 총 101건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 사실 보도 프레임에서는 특정 선수의 귀화 사실, 경기 출전 및 입상 관련 정보가 전달되었고, 경제성 프레임의 경우 외국인 특별귀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통해 귀화의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서는 외국인 귀화 선수들의 성장과 귀화 과정, 삶과 애로 등이 보도되었으며, 갈등 프레임의 경우 파란눈 국가대표들의 대표성 문제, 국내 선수육성의 인과성, 국내 프로리그 복귀로 인한 리그 규정의 혼성 등이 주로 보도되었다. 도덕성·책임귀인 프레임은 주로 2016년 첼시 리의 특별귀화 서류조작 사건을 통한 귀화선수의 도덕성과 법적 후속조치 등이 보도되었다.

• **주제어** : 스포츠, 세계화, 귀화, 언론보도, 미디어 프레이밍, 담론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media frames and its contents regarding foreign athletes' naturalization to Korea. For data, 101 media reports from the year of 2014 to 2016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results, in the simple-fact-report frame, facts regarding foreign athletes' naturalization process and results of the matches were reported. In the economic frame, legitimacy of the naturalization was supported by emphasizing its benefits. In the humane-interest frame, personal history and difficulty as foreign athletes were described. In the conflict frame, negative effects by the foreign athletes' naturalization were mainly reported.. In the morality/responsibility attribution frame, Chelsea Lee's document forgery case was mostly highlighted that later issued naturalized athletes' morality and following legal actions.

• **Key Words** : Sports, Globalization, Naturalization, Media report, Media framing, Discourse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임승엽(slim3@korea.ac.kr)

Received February 10, 2017

Revised March 8, 2017

Accepted March 20, 2017

Published March 28, 2017

## 1. 서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10명 중 1명이 외국인 귀화선수로 채워질 전망이다. 최근 대한 체육회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해 외국 출신의 선수는 13명으로 이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130명 중 약 1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것이다[1]. 그 중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선수 22명 중 귀화선수가 6명으로서 타 종목에 비해 비율이 높다. 그래서인지 마이크 테스트위드 등이 주축이 된 귀화선수들은 과거 ‘동네북’이었던 한국 아이스하키팀을 몰라보게 변모시키며 2016년 유로켈린지에서 사상 첫 우승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바이애슬론의 경우에도 러시아 출신 선수 세 명을 귀화시켰다. 그 중 2010 밴쿠버올림픽 여자 스프린트 4위를 기록한 안나 프롤리나는 2013년 러시아 대표선발에 실패한 뒤 한국으로 귀화한 재원으로 그녀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 바이애슬론은 세계선수권에서 최초로 메달(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겨스케이팅에서도 해외 유망주를 영입하기 위해 특별 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민유라와 아이스댄스에서 파트너로 알려진 이룬 알렉산더 게멀린(미국), 지민지의 페어파트너 테미스토클레스 레프테리스(미국)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2].

<Table 1> List of the naturalized foreign athletes in South Korea

Name(Gender, Age)	Nationality	Sport
Brock Radunski(male, 34)	Canada	Ice hockey
Michael Swift(male, 30)	Canada	Ice hockey
Brian Young(male, 31)	Canada	Ice hockey
Matt Dalton(male, 31)	Canada	Ice hockey
Eric Regan(male, 29)	Canada	Ice hockey
Mike Testwuide(male, 30)	The U.S.	Ice hockey
EunJung Park(female, 28)	Canada	Ice hockey
JinKyung Lim(female, 24)	Canada	Ice hockey
Anna Frolina(female, 33)	Russia	Biathlon
Ekaterina Abakumova(female, 27)	Russia	Biathlon
Aleksandr Starodubets(male, 24)	Russia	Biathlon
Timofey Lapshin(male, 29)	Russia	Biathlon
Aileen Frisch(female, 24)	Germany	Luge

\*Resource: Joongang Ilbo(February 14, 2017)

귀화(歸化)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3]인데 크게 해외에서 국내로의 귀화와 국내에서 해외로의 귀화로 구분된다. 해외에서 국내로의 귀화는 1994년 배구선수 후인정(중국)을 시작으로, 축구선수 사리체프(러시아), 탁구선수 당에서(중국), 야구선수 주권(중국), 농구선수 문태종(미국), 문태영(미국), 이승준(미국), 이동준(미국), 아이스하키선수 브락라던스키(캐나다) 등이 귀화한 바 있다. 반대로 국내에서 해외로의 귀화는 주로 양궁과 쇼트트랙 선수들이 많은데, 양궁의 경우 김하늘 선수가 호주로 귀화했으며, 엄혜랑, 엄혜련 자매는 일본으로 귀화하여 2014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쇼트트랙의 경우 최민경 선수가 프랑스로 귀화하여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빅토르 안(안현수)이 러시아로 귀화하여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4관왕에 오른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4].

운동선수의 귀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올림픽이 자국을 대표로 하는 스포츠 이벤트로서 민족의 대표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아이스하키대표팀에 푸른 눈을 가진 선수들이 한국을 대표하여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예정이란 사실 때문에 그들을 대표팀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닌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철학자 김정호[2]는 “한국 겨울스포츠는 저변이 취약하다. 이대로라면 안방에서 남의 잔치를 구경만 할 수도 있다”며 “귀화선수를 뽑으면 단기간 내에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동시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장점이 있다”[2]고 말해 외국인 선수의 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캐나다 동포 백지선 아이스하키대표팀 감독 또한 2006년 토리노올림픽 개최국 이탈리아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11명을 귀화시킨 점을 부각하며 귀화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의 경우에도 러시아 대표선수 213명 중 14명이 귀화선수였다[2].

이와 같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종목에서 우수한 인재를 귀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주장이 존재하는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유겸 서울대 교수는 “올림픽을 앞두고 급하게 귀화를 추진한 경우가 많다. 국민들이 과연 이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메달을 따내고 해서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며 “돈으로 메달을 사는 것과 다름없다. 승리가 아닌 참가에 의미를 두는 올림픽 정신

과도 거리가 멀다”[2]고 지적하였다. 즉, 우리나라를 대표해 경기를 한다는 상징성이 감소하여 진정한 국가대표로 인정받기 힘들뿐만 아니라 경기를 보는 흥미도 떨어질 수 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도 “일부 귀화선수들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2]고 경고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우이지만 양궁과 쇼트트랙, 야구, 유도 등에서 해외로 귀화한 뒤 국내로 재귀화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5], 그들의 모국으로 재귀화하는 현상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렇듯, 외국인 선수의 귀화 문제는 단순히 스포츠 노동 이주자의 국적 이동이라는 명제를 넘어 민족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행연구에서도 외국인 선수의 국내 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와 담론을 내놓고 있다. 맹이섭, 권웅[6]은 프로스포츠팬을 대상으로 귀화선수의 국가대표선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이기 보다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수용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합법적 귀화조건에 부합하며 한국문화 수용의지가 확인된다면 귀화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김용민[7]의 연구에서도 귀화선수에 대한 인식, 국가·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귀화선수의 국가대표선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귀화한 국가대표 선수의 적절성과 지속 가능한 귀화 국가대표선수 선발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한 바 있다. 이선희, 광정현[4]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귀화선수를 바라보며 단일민족에서 다민족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편협한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귀화선수를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 김현수, 김동규[8]는 귀화정책의 정당성과 다문화적 과제에 관한 연구에서 스포츠선수의 이민과 귀화 현황, 귀화의 절차상 기준이 되는 국적법, 이민법의 논점들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국내로의 귀화 선수들의 실제사례를 적용하여 국민의 대표성 침해, 국가 간 경쟁의 공정성 침해, 다문화 동화정책 위배 등에 대한 탐색을 통해 다문화 동화주의에 입각한 개방사회를 추구하는 국내 정책 방향과 이민정책 내에서 외국선수들의 귀화문제를 고찰하였다. 특히 조영한[9]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뒤 2008년 북경올림픽에 탁구선수로 출전한 당에서 선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녀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언론의 보도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사회에서 이주, 귀화, 민족, 국가정체성이 언론을 통해 재구성되는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조영한[9]의 연구에서도 차용되었듯이, 언론보도는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와 의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담론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속성이 있다. 즉, 언론보도를 통해 미디어 소비자들이 듣고 읽는 것들은 대중이 경험하는 실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일상대화, 의사결정, 가치판단 등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0,11]. Wright[12]는 이를 일컬어 ‘해석 혹은 상관조정기능’이라 하였다. Wright[12]는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으로 환경감시기능, 해석 혹은 상관조정기능, 가치전수기능, 그리고 오락 기능 등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그 중 일련의 사건·사고들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미디어의 ‘해석 혹은 상관조정기능’이다. 즉, 미디어는 사회적 주요 사건들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의미의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현실 시각에 대한 사고의 틀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13,14].

앞서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운동선수의 특별귀화와 관련한 담론을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지대한 시대적 상황을 근거로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 현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어떤 프레임으로 해석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선수의 특별귀화가 보도되는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미디어에서 형성하는 프레임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특별귀화와 미디어의 프레임의 관계에 대해 사회학의 측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외국인 선수 특별귀화가 미디어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 하나의 의미로 형성되는 방식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외국인 특별귀화로 인한 인식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판단과 사고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이론적 근거: 미디어 프레임 이론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사회현상을 보도하고 해석하는 특정 방식은 Gamson[15]이 제시한 ‘프레이밍(framing)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프레임 효과란 창문의 틀(frame)과 같이 특정 현상을 이해하고 지각하는데 채택되는 방식으로서, “관련된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무엇이 이슈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뉴스의 내용을 조직하는 중심원리”[15, 13, p. 320에서 재인용]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언론에서 채택한 프레임의 차이에 따라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특정 사건이나 사고를 보도하면서 유독 한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구체화 하고 반대로 다른 측면들은 배제 혹은 단순화함으로써 대중의 해석이 일정 방향으로 정형화되고 구조화될 수 있다. 이 미디어 프레임링 효과로 인해 미디어 소비자들은 특정 사건과 현상의 본질을 특정 프레임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13].

미디어의 프레임링에 관한 지적 전통의 근원은 Goffman[16]이 제시한 준거 틀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Goffman[16]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한 인과성의 귀인이 아닌 기본적인 틀, 즉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해석 스키마(기존 정보체계)에 의존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사회적 미디어 담론이 미디어 소비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특정한 프레임으로 구성된다는 기본 가정을 지니고 있다. 이에 Edelman[17]의 주장과 같이 “사회적 세계는... 잠재적 세계를 비추는 만화경으로, 관찰이 틀어지고 범주화되는 방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손쉽게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될 수 있다”[17,18, p. 41에서 재인용]. 결국 미디어 프레임은 미디어 수용자의 신념과, 행동, 태도 등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18]

미디어 프레임링은 스포츠 보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 스포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주의의 성장으로 인하여 미디어는 스포츠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포츠판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링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디어 제공자의 의도에 따라 스포츠 방송의 내용이 결정되며 보도의 이미지와 논평의 종류가 결정된다[19]. 따라서 미디어는 스포츠 팬의 삶에 관여하며 그들이 스포츠를 흡수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틀’을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언론보도가 외국 선수의 국내 귀화를 일정한 틀에 맞춰 미디어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귀화에 대한 여론과 공감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프레임링 이론은 외국 선수의 국내 귀화가 한국 사회와 스포츠에 새로운 현상으로 정착하게 되는 방식과 유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적절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외국인 선수 특별 귀화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링과 담론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종합 뉴스 데이터 및 분석 시스템 ‘Korea Integrated Database System’(KINDS, <http://www.bigkinds.or.kr>)을 활용하였다. KINDS는 미디어 보도를 분석한 선행연구[20,21]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체육학뿐만 아니라 비체육학[22,23,24]에서도 언론매체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출처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19]. 언론보도 자료는 크게 신문매체와 방송매체로 구분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신문매체인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에 출판된 기사와, 방송매체인 MBC, SBS, YTN에 보도된 관련 보도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종합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였으나 자료획득의 제약이 따르고 언론사의 성향과 유형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검색은 기사 및 보도 제목이 ‘귀화’를 포함하는 사례를 검색하여 총 290건의 관련 기사를 확보하였다. 이후 모든 기사를 읽어 보며 스포츠와 무관한 기사, 선행 기사와 제목과 내용이 90% 이상 중복되는 기사, 국내 선수의 해외로의 귀화 관련 기사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2014년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한원수)의 귀화 관련 보도는 국내 선수의 해외로의 귀화를 다루고 있으며, 이미 학계에서 충분한 논의[25, 26, 27]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수집된 언론보도는 총 101건이며 구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position of media reports sort by company

	Number of articles	Percentage(%)
Kyunghyang Shinmun	15	15
Segye Times	30	29
Hankyoreh Shinmun	6	6
Korean Daily Report	20	20
MBC	10	10
SBS	10	10
YTN	10	10
Total	101	100

### 3.2 자료분석

언론보도관련 프레임 연구는 분석대상의 특성에 따라 연역적 혹은 귀납적인 접근방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연역적 방식이란 기존에 있는 프레임을 사용하며 Valkenburg, Semetko[28]이 제안한 갈등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제성 프레임, 책임귀인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29].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구 목적에 맞게 소폭 수정하여 책임귀인 프레임과 도덕성 프레임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간주하여 사용하였다.

귀납적 접근방식이란 정형화된 틀을 적용하지 않고 언론보도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프레임들을 연구자가 직접 발췌하는 방법이다. 귀납적 접근 방식은 언론보도에 대한 가능한 모든 프레임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9].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특별귀화 관련 언론보도 내용분석에 있어 각 범주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귀납적 방식과 연역적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보도내용이 Valkenburg, Semetko[28]이 제안한 여섯 개 프레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연역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기존의 프레임보다 새로운 프레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귀납적 분석방법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귀납적 방법에 의한 프레임은 ‘단순 사실보도 프레임’이 발견되어 이를 활용하였다.

### 3.3 자료의 진실성

자료의 진실성, 즉 프레임 선정과 내용분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 2인 간 교차적인 검토가 면밀히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30개의 기사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프레임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90% 이상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프레임의 결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나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포츠사회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으로 이루어진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를 수행하여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미디어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

다는 전제하에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 현상이 한국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언론보도 프레임과 그 내용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앞서 제시한 연구방법에 의해 네 개 신문사와 세 개 방송사의 관련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프레임과 내용을 발견하였다.

### 4.1 단순 사실보도 프레임: 언론의 기본적인 정보전달

단순 사실보도 프레임이란 Valkenburg, Semetko(1999)이 제안한 프레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인 정보전달에 충실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선수의 귀화 사실, 경기출전 및 입상 관련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된 보도가 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력강화를 위해 테스트 위드 마이크 윌리엄(28, 미국)과 박 캐롤라인 낸시(26, 여, 캐나다) 등 2명에 대해 특별 귀화를 허가했다... 박씨는 미국 프린스턴대에 입학, 미국 대학 1부 리그에서 활동하다 2013년 초청 선수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박씨는 한국계 캐나다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캐나다 국적 교포다.[30]

티엔민웨이라는 중국 이름을 버리고 2010년 8월 한국으로 건너온 전지희는 27일 충남 당진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 여자부 경기에서 8승 1패를 기록, 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했다.[31]

일반적으로 단순 사실만을 다루는 언론보도의 경우 그 내용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위에 제시된 기사처럼 외국 선수의 귀화에 대한 단순 정보, 그리고 귀화 선수의 국내·외 성적 외 귀화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4.2 경제성 프레임: 귀화의 손익계산

경제성 프레임의 언론 보도는 외국인 선수의 특별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예상하고 이를 제시함으로써 귀화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외국인 귀화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한 실질적 정보로 이용될 수 있는 경제성 프레임 언론보도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의 귀화 전 국내·외 입상

경력과 귀화 후 예상되는 국가대표로서의 활약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해리스(26)의 귀화를 추진한다... 경기당 평균 20점 11.2 리바운드를 기록했다... 해리스를 앞세워 7시즌 연속 우승을 노리던 안산 신한은행을 꺾고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다... 해리스가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여자농구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진다... 라이벌 일본, 중국보다 높이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확실한 골밑 자원으로 인해 내·외곽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32].

2014년 4월, 삼성생명엔 미국인 멤버 해리스를 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녀의 귀화는 철저한 경제적 논리에 의한 기획이었다. 언론에서는 해리스의 경기 평균 점수와 리바운드 기록을 보도하며, 한국 국적 취득 시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서 메달획득 가능성을 홍보하고 간접적으로 귀화의 당위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였다. 같은 시기, 대한 농구협회도 애런 해인즈를 귀화시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 '3년 이상 지속적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해인즈의 귀화는 무산되어 갔다. 이때 한국일보[33]는 "해인즈는 설령 귀화를 하더라도 아시안게임만 땀 예정이었기 때문에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해인즈 귀화의 목적이 오직 아시안게임 출전이었음을 보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귀화 또한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미디어는 외국인 선수의 귀화 자체가 국제대회에서의 메달획득 이었음을 직·간접적으로 알리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던 한국바이에슬론팀이 스타로두벙츠 알렉산드르와 프로리나 안나를 귀화하며 알렉산드르의 러시아 주니어 국가대표 경력과 알렉산드르의 2009 평창 세계선수권대회 스프린트 4위, 계주 1위, 밴쿠버 올림픽 4위 등의 기록을 소개하며 세계 정상급 선수임을 강조하였다[34]. 루지의 경우에도 에일린 프리쉬의 귀화 후 "여자 1인승, 남자 1인승, 2인승 순으로 주행하는 팀 플레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국가대표로서의 활약을 예견하였다.

한편, 국제대회에서 상대국이 보유한 귀화선수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귀화가 필요하다는 계산법도 기사에서 발견된다.

기어코 결승까지 올랐지만, 한국 농구대표팀 '허재호'에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특히 귀화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대에 고전하면서도 한국도 귀화선수의 필요성을 또 한 번 느끼고 있다... 특히 미국 출신 귀화 선수 케빈 갤러웨이에게 고전했다... 경쟁국들이 귀화 선수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한국도 다시 귀화선수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35].

이처럼 경제성 프레임의 주요 기사들에서 나타나듯이, 외국인 선수들의 특별귀화는 그들의 경기력을 국내 프로 리그에 활용하거나 나아가 국가대표로서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적 논리로 귀화가 추진된 점을 주로 강조하였다.

#### 4.3 인간적 흥미 프레임: 귀화와 성공의 사연 전달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개인의 분노와 감정 등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프레임으로서 주로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일화적 이야기를 주로 보도한다. 언론에서는 외국인 귀화 선수들의 자라온 성장, 귀화 과정, 귀화 후 한국인으로서의 삶, 애로 등의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귀화 선수들이 외국인, 이방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득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가 더욱 주목을 받는 건 KBO리그 귀화 1호 선수이기 때문이다. 조선족으로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나 자란 주권은 초등 3학년 때인 2005년 한국으로 건너와 2007년 귀화했다. 중국에서는 축구를 했지만, 한국으로 와서는 야구를 시작했다. 이후 청주중과 청주고를 거치며 에이스 투수로 성장했다[36].

공상정은 대만 국적의 화교 2세인 부모로부터 한국이 아닌 대만 국적을 물려받은 채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상정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한국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때 주니어대회 뛰면서 뽀빠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여겼던 공상정에게 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37].

공상정은 유년 시절 국내에서 한국선수들과 함께 운동하며 성장했지만 중국인 신분으로 인해 주니어대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문태중 또한 “제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팬 여러분 사랑해요”[38] 등의 기사에서 혼혈 문태중 선수가 한국인으로서 생각하는 자부심과 팬사랑이 보도되었다. 경향신문[39]에서는 전태풍 선수가 2015년 자유계약선수가 되자 그 동안 귀화를 통해 얻게 된 긍정적 결과 등에 대해 보도하였다.

지난 시즌을 끝내고 자유계약선수가 돼 새 팀으로 옮겨가게 된 이들은 이날 KBL 주관 아래 계약서에 사인하고 새 시즌 성공을 다짐했다... 지난 6년을 돌아본 3명은 하나같이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입을 모았다. 전태풍은 “100% 잘 한 선택”이라며 “한국에 와서 몸도 마음도 더 컸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뭘 때 혼자서 이 나라, 저 나라 연봉 따라다니며 너무 외로웠다. 한국에 와서 가족, 한국사람, 우리나라, 이런 느낌을 갖게 돼 좋았다”고 했다.[39]

같은 기사에서 문태영의 경우도 “6년이 빨리 갔다. 정말 행복했고, 특히 모비스에서 된 3년간 우승하면서 특별히 더 즐겼던 것 같다. 한국행은 인생에 큰 결정이었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결정이었다”[39]며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의 마음을 언론을 통해 내비쳤다. 결국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서는 자칫 이방인, 타인, 남이 될 수 있는 다른 피부, 다른 눈 색상의 외국인을 인간적 감정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한국인들로부터 거부감과 이질감을 감소시키고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다.

#### 4.4 갈등 프레임: 외국인 선수 귀화에 대한 찬반 논쟁

갈등 프레임에서는 미디어 수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개인, 집단, 조직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외국인 선수의 특별귀화로 인해 야기된 국가대표로서의 대표성 문제, 국내선수육성의 문제, 국내 프로리그 복귀로 인한 리그 규정 혼선 등이 주로 보도되었다. 무엇보다도 순혈주의와 민족주의를 유지하자는 반대의견과 귀화를 통해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을 올리고 국내 리그의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성적지상주의적 견해를 보도하며 스

포츠 현장에서의 갈등 양상을 전달하였다. 일례로 2015년 케냐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냐에 에루페의 귀화신청 당시 침체된 육상을 살리기 위해 올림픽 메달이 절실한 만큼 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와 에루페를 시작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대거 귀화하여 한국 유망주들의 씨가 마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대립하였다[40].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41]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 측면의 관점을 전달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에루페의 귀화와 국가대표 발탁 여부를 놓고 육상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침체된 마라톤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마라톤 유망주의 싹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선에서 마라톤을 지도하는 한 감독은 “귀화해서 올림픽 메달을 따는 의미보다는, 좋은 선수가 함께 훈련하면서 침체된 한국 마라톤의 새로운 봄을 일으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마라톤팀 감독은 “에루페가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면 이제 우리 선수들은 모든 대회에서 1등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기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하지만 애초 실력이 비교가 안 된다”고 말했다[41].

그러나 곧 이어 같은 언론사에서 “악물 전력 귀화 선수로 한국 마라톤 살릴 수 있다”란 기사를 보도하며 귀화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탤다. 즉, 에루페가 귀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징계 해지 후 3년이 지나야 대표 선수로 뛸 수 있다’는 현 대한체육회 대표 선발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리우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에루페의 귀화를 반대하였다.

때문에 굳이 이런 선수를 귀화시켜 올림픽에 내보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또 귀화 선수의 등에 올라타 기록을 단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반발하는 기류도 강하다. 황영조(44)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은 “마라톤은 우리 민족혼이 짙게 녹아있는 종목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귀화선수가 각종 무대를 휩쓸고 다닐게 뻔한데, 그에게 태극마크까지 달아주면 한국 마라톤의 중흥이 아니라 말살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42].

반면 세계일보[43]는 에루페의 귀화에 대해 “에루페 귀화, 마라톤 부활 계기 돼야”라는 기사를 통해 긍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에서 “선수나 지도자 모두 전국 체전 우승으로 만족하는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제 2의 황영조, 이봉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며 귀화 반대 여론을 ‘밤그릇’싸움으로 폄하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에루페의 귀화가 국내 마라톤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자극제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에루페 귀화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면서 한국 마라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길 바랍니다”며 에루페 귀화에 힘을 실어 주었다.

외국인 특별귀화에 대한 찬반론은 지금까지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비인기 종목의 국제무대에서의 메달 획득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개최국으로서의 수모를 면하자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귀화 열풍이 몰고 올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의 경우 원래의 국적을 유지하며 복수국적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손해될 것이 없고, 평창 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금 모국으로 돌아가도 제약할 방법이 없다.

귀화는 쉽게 생각해서 안 되는 행동임에 틀림없다. 한 스포츠 관계자는 “귀화는 그저 국적 하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원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과도 같은데 단순히 용병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귀화의 숭고한 정신을 경감하는 작금의 현실을 비판하였다[44].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대표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있을 선수들과 올림픽과 스포츠의 근본 가치를 생각한다면 귀화문제가 단순히 메달획득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확고해 진다.

#### 4.5 도덕성 프레임/책임귀인 프레임: 귀화 선수의 도덕성과 문책 담론의 형성

도덕성 프레임이란 주제와 관련하여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도덕적 규범의 맥락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프레임을 말하며, 책임귀인 프레임은 사건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보도 프레임이다. 귀화 선수와 관련하여 도덕성/책임귀인 프레임의 언론보도는 극히 드물었으나 2016년 첼시 리의 특별 귀화 서류 조작 사건을 통한 귀화 선수의 도덕성과 법적 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체육회의 농구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첼시 리(27, KEB하나은행)가 귀화 신청 때 위·

변조된 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농구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리가 제출한 자신의 출생증명서와 아버지의 출생증명서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45]

해외에 있는 리와 그의 에이전트는 검찰의 해명 요구에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다.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은 “첼시 리와 에이전트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위조로 판명되면 장승철 구단주는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46]

해당 사건은 대한체육회의 농구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첼시 리가 귀화 신청 때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한 사건이다. 2015년 하나은행에 입단한 첼시 리는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라며 ‘해외동포 자격’을 부여받고 한국인으로 간주돼 한국 무대에 진출했고 신인왕까지 차지했다. 이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첼시리가 귀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첼시 리가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실제로 검찰이 “리가 한국계 혈통이 아닐 확률이 높다”며 리와 서류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에이전트가 소환에 불응하자 미국 사법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고 관련자와 KEB하나은행의 처벌이 수면위로 거론되었다. 특히 외국인 선수의 귀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터진 사건으로 외국인 선수 귀화 반대 의견이 더욱 거세게 보도된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선수의 에이전트와 국내 프로구단 또한 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 5. 논의 및 결론

### 5.1 논의

스포츠에서 귀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자신의 국가에서 해당 스포츠 기반이 매우 빈약할 경우로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팀 귀화선수들이 그 예이다. 둘째, 자국 내 같은 종목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 뛰어나 국가대표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서 태권도, 양궁, 쇼트트랙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선수 개인적으로 보다 큰 무대에서 활동하거나 귀화 국희망국에서



경제적 보상이 좋은 경우 귀화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종목에서 선구자가 되기 위하여 해당 종목의 종주국 선수로 뛰기 위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 중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형은 첫 번째 해당 스포츠 즉 쇼트트랙을 제외한 동계스포츠 대부분의 종목에서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유럽국가 대표선수들에 비해 매우 낮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돈 들여 ‘남의 잔칫상’을 바라만 볼 수 없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경우이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특별귀화가 첼시 리 선수의 혈통 사기사건과 국내 국민들의 반감,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의 문제점, 국가대표의 대표성 등의 논란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현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국제화 시대, 다문화 시대의 논리로 일괄적으로 눈감고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최근 외국인 선수의 귀화행렬이 단순히 평창올림픽 면피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귀화를 허용함에 있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으로의 귀화는 당사자에게 감사와 감동의 눈물, 귀화가 결정되기까지의 인내와 역경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감동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대한축구협회에서 리우올림픽 대비 피수전력이 라는 이유로 추진한 바 있는 에닝요 선수의 경우 기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포지션의 중복, 국민정서, K리그 내부의 의견 미조율 등의 이유로 귀화기각 결정이 낮지만, 무엇보다도 에닝요 선수 자신이 한국 국민이 되고자 한 의지와 열정이 미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타국 선수들이 대한민국 귀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되었다. 즉, 엄중하고 숙연한 대한민국으로의 귀화가 되어야 하는데, 외국인 선수들에게 있어 ‘인생에 있어서의 좋은 추억 하나 잘 만들었으니 이제 떠나자’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국가적인 굴욕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선수들의 육성과 복지에 있어서도 문제로 남는다. 앞서 황영조 감독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외국인 특별귀화제도는 국내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프로선수로의 꿈, 국가대표의 꿈이 외국인 선수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어려워진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과거 프로농구에서 용병을 유입할 때 센터포지션 선수를 중점적으로 들여오으로써 국내 농구 센터 꿈나무가 사라진 것을 이번 귀화행렬의 결과로 재현 될 수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복지에 있어서도 국내 운동선수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국가대표로서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것이 연금제도와 메달리스트, 국가대표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지도활동이다. 그러나 국제대회에서 외국인 선수가 대표선수가 되는 기회를 차지하고 대신 메달을 획득하여 연금의 기회조차 빼앗기게 된다면 국내 운동선수들의 의욕이 더욱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이어지는 귀화행렬을 두고 최종준[47]은 다음과 같이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첫째, 특별귀화제도의 철저한 관리다. 외국인 선수의 귀화가 비록 국제화 시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스포츠이민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단일민족 국가 정서가 오늘날까지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파란눈의 국가대표를 진정한 국가대표로 받아들이기에는 국민적 반향이 크다. 따라서 첼시 리 선수의 혈통사기 사건과 같은 외국인 선수 귀화 관련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에이전트, 구단, 연맹,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절차의 체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미 특별귀화에 성공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제도는 대한체육회에서 분기별 근황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허가요건의 상실, 국익에 전혀 무익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 특별귀화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국익에 부합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귀화선수의 프로리그로의 유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각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설정한 뒤 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구단과의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해 지난 번 첼시 리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첼시 리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당장의 성적에 급급해 외국 선수 귀화를 서두르게 되면 이는 손쉽게 메달을 획득하려는 편의적 발상으로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종목의 저변확대와 선수 발굴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도 국제대회의 메달 신드롬을 버리고 우리나라 선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그 결과에 상관없이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 5.2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지

대한 시대적 조류를 근거로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 현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되는 프레임의 유형을 보고 각 프레임의 보도 내용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언론보도 중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MBC, SBS, YTN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외국인 운동선수의 특별귀화와 관련된 보도 총 101건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연역적 방법으로 Valkenburg, Semetko[29]가 제안한 다섯 가지 미디어 프레임과 귀납적 방법으로 발견한 단순 사실보도 프레임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 사실보도 프레임에서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인 정보전달에 충실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선수의 귀화사실, 경기 출전 및 입상 관련 정보가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경제성 프레임의 경우 외국인 특별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예상하고 이를 제시함으로써 귀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의 경우 외국인 귀화 선수들의 자라온 성장, 귀화 과정, 귀화 후 한국인으로서의 삶과 애로 등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그들이 외국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득하는 기능을 하였다. 갈등 프레임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특별귀화로 인해 야기된 파란군 국가대표들의 대표성의 문제, 국내 선수육성의 인과성, 국내 프로 리그 복귀로 인한 리그 규정의 혼성 등이 주로 보도되었다. 그 중 순혈주의와 민족주의를 유지하자는 귀화 반대 의견과 국제대회에서의 성적과 국내리그의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성적지상주의적 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 도덕성·책임귀인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발견되었으나 2016년 첼시 리의 특별귀화 서류조작 사건을 통한 귀화선수의 도덕성과 법적 후속조치 등이 보도되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선수 특별귀화와 관련된 언론보도 프레임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사실보도부터 귀화 찬반 논쟁, 귀화선수의 한국 문화로의 흡수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무엇보다 귀화 찬반논쟁에서 찬성의 의견과 반대의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대중에게 전달한 미디어 보도는 해당 현상이 국민에게 해석될 ‘여론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몇 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귀화선수에 대한 담론형성에 있어서 올바른 미디어의 역할을 기대한다.

## REFERENCES

- [1] [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170214090416573261](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170214090416573261)
- [2] <http://news.joins.com/article/21231434>
- [3]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16.
- [4] S. Lee & J. Kwak, "Watching Naturalized Athletes: Focusing on Nationalism", The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Vol. 25, No. 4, pp. 39-49.
- [5] <http://news.donga.com/3/all/20170110/82275730/1>
- [6] L. Maeng & W. Kwon, "A Study on Recognition of Professional Sport Fans for Immigration of Sports Athlet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4, No. 4, pp. 111-121, 2015.
- [7] Y. Kim, "A Study on Recognition of the Nationalized Athletes, National Identity, and the Selection of National Athletes, M.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6.
- [8] H. Kim & D. Kim, "Legitimacy of Sport Player Naturalization Policy and Multi-cultural Task",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Vol. 24, No. 4, pp. 69-86, 2016.
- [9] Y. Cho, "Migrating Sports Celebrity and Flexible Citizenship",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27, No. 4, pp. 217-241, 2014.
- [10] G. Sage, "Power and Ideology in American Sport. II: Human Kinetics, 1998.
- [11] J. Coakley, Sports in Society: Issues and Controversies. NY: McGraw-Hill, 2009.
- [12] C. Wright, "Functional Analysis and Mass Communications Revisited". in Blumler, J. & Katz, E. (eds), "The Uses of Mass Communications", CA: Sage, 1974.
- [13] K. Han, W. Hong, I. Lee, H. Ban, T. Kang, K. Lee, D. Kim, K. Song, D. Cha, B. Jeon, Y. Min, J. Ma, H. Lee, & K. Kim, "Contemporary Society and Media", Seoul: Communication Books.
- [14] S. Lim, "Exploring the Success Ideological Framing of Media and Immanent Reality

- regarding Elitism of Korean Women's Soccer",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24, No. 3, pp. 159-182.
- [15] W. A. Gramson & A. Modigliani,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Un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5, pp. 1-37, 1989.
- [16] E. Goffman,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17] M. J. Edelman,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3, pp. 51-58, 1993.
- [18] C. Kim, S. Yang, K. Lee, & Y. Hwang, "Media Effect Theory, Kyungdo: Nanam, 2010.
- [19] S. Lim & J. Park, "Rethining Media Framing on the Discourse of Fighting-spirit under Injury in Korean Sport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 10, No. 3, pp. 103-114, 2012.
- [20] N. Lee & K. Lee, "The Discourses of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ism through Mass-media News of Hines Ward",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20, No. 1, pp. 107-125, 2007.
- [21] J. Park & S. Lim, "Socio-cultural Implications of the Inner Conflicts of Korea Short-track Skating: Focusing on the Controversies around Victor A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3, No. 4, pp. 171-180, 2014.
- [22] W. Chun, "A Study of Uses and Gratifications on Database", M.S. thesis, Kyung-Hee University, 1996.
- [23] J. Park, "The Media Discourse Analysis on Leisure Culture: Focusing on 'camping'", M.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4.
- [24] J. Kim, "An Media Frame Analysis on Outdoor Recreation with Camping as a Central Subject",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and Park, Vol. 40, No. 2, pp. 58-72, 2016.
- [25] J. Kim, "Relationships between Perspectives of Athletes' Naturalization and Attitudes of Sport Federation". M.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5.
- [26] Y. Kim, B. Moon, & B. Kim, "Semantic Interpretation of Newspaper Report on Victor An in 2014 Sochi Winter Olympic Gam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27, No. 2, pp. 77-102, 2014.
- [27] S. Kim, "Analysis of Significance Structure of 'Victor An Phenomena' in Sochi 2014 Winter Olympic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Vol. 41, pp. 113-141.
- [28] P. M. Valkenburg & H. A. Semetko, "The effect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Vol. 26, No. 5, pp. 550-569, 1999.
- [29] J. Son, S. Ha, & B. Lee, "Frame Analysis of News Coverage of 'Media Law'",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Vol. 17, No. 2, pp. 89-116, 2013.
- [30]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0701.2015032310016704196](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0701.2015032310016704196)
- [31]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0701.2014062710014636419](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0701.2014062710014636419)
- [32]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40411100000177](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40411100000177)
- [33]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40520100000065](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40520100000065)
- [34]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60401052005970](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60401052005970)
- [35]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0101.20160918211712418](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0101.20160918211712418)
- [36]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60530050729471](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60530050729471)
- [37]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8100301.20140308150000105](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8100301.20140308150000105)
- [38]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8100301.20140917150000333](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8100301.20140917150000333)
- [39]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0101.20150526100000108](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0101.20150526100000108)
- [40]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0701.20150626100000088](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0701.20150626100000088)

- [41]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001.2015062410000087](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001.2015062410000087)
- [42]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50623100000150](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50623100000150)
- [43]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0701.20150625100000024](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0701.20150625100000024)
- [44]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60617051313653](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60617051313653)
- [45]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60427051953320](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60427051953320)
- [46]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60616051311084](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101101.20160616051311084)
- [47]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494&aid=0000000027>

저자소개

이 장 원(Jangwon Lee)

[정회원]



- 1988년 6월 : 오레곤주립대학교, 체육교육학과(교육학석사)
- 1992년 4월 : 브리엄 영 대학교, 체육교육학과(철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중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과학, 스포츠미디어

임 승 엽(Seungyup Lim)

[정회원]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 석사)
- 2009년 8월 : 테네시주립대학교, 체육학과(철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미디어, 스포츠사회학